

11. 김숙자 할머니의 회한의 토종 텃밭

파주는 콩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만주다.

콩이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로 전해 오면서 오랫동안 파주에서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는 중에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 온 콩들과 교잡되면서 또 한 번의 분화과정을 이뤄지지 않았을까. 이곳에서 많은 콩의 분화가 이뤄지고, 다시 반도 밑으로 퍼져 내려가면서 다양한 콩으로 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을 세워 본다.

이번은 선비잡이 콩을 찾아 나섰다.

토종계에선 선비잡이 콩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구전설화 스토리도 짜임새가 있어 흥미롭고 콩 맛이 좋다 보니 급격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지켜왔고, 누가 지켜왔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토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선비잡이 콩이다. 수집하러 다니다 보면 어디에서 얻어왔다 싶으면 토종 나눔에서 얻거나, 토종 나눔을 해온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허다하다.

그런 통로가 아닌 토종 농가로부터 수집한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북쪽에서 찾은 선비잡이 콩은 파주, 연천 지방이고, 가장 남쪽에서 찾은 콩은 장흥이었다. 각각 그 지역에서 찾은 콩은 지역별 특징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제주에서도 수집했지만, 내가 기회가 있으면 강조하는 토종이라는 범주 안에는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어우러져야 한다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한 경우다.

서리태가 많은 지역(잘 분화한 지역)은 검은 점이 크고 선명하기도 하여 눈이 또렷하니 용의 눈 콩이라 하고, 어느 지역의 선비잡이 콩은 검은색이 흐릿하기도 하니 그냥 선비콩이라 한다. 또는 분화과정에서 만난 다른 콩에 따라 굵기도 다르게 변이되어가고 있었다. 다만 맛만은 변함이 없으니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토종이다. 그러나 특이한 변별력이 없었으니 그 콩도 또한 어디에서 보존되어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10여 년 전에 할머니로부터 선비잡이콩을 수집했다는 정보를 안 박사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그렇게 만난 인연이었다. 하필 인연이 닿은 것이 선비잡이 콩이었고, 그곳이 북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남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 설렘 속에 찾아간 곳이 바로 파주의 김숙자 할머니였다.

포천으로의 토종 씨앗 수집 이틀째였다.

간신히 찾은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리는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았다. 마을도 둘러보고 할머니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볼 겸 해서 이 밭 저 밭, 이 담장 저 담장을 둘러보며 어디 토종이 없나? 하며 두리번거리며 어느덧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밭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 댁 뒤쪽 텃밭이 좀 별났다.

50평 남짓한 밭에 작물들이 장마 끝에 나온 풀처럼 이랑과 고랑을 가리지 않고 짹 차 있었다. 도대체 빈 곳이 없었고, 이랑을 먼저 심었으면 나중에 고랑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모종 사이가 좀 뜬다 싶으면 그사이에 벌써 다른 작물이 들어차 있었다. 심지어 두둑까지 흘러당 벗겨내어 모종을 심었다. 근 30여 종은 되는 것 같았다. 오천 평에 있어야 할 모종들이 오십 평 남짓한 곳에 빼곡했다.

이게 먹으려고 심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가 일정한 법칙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그냥 막 심은 것은 아니고 뭔가 계획에 의해 심겨 있었다. 부록빼기인가 싶어 보면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수확을 위해 심은 것은 분명해 보였다. 일단은 크고 작음

은 구분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확 시기도 고려한 듯했다.

신기하기도 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한지 이웃 장년이 다가왔으나, 우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가 채권자로 알았다는 것이었다.

- 어디 가셨대요. 김숙자 할머니?

- 철원으로 일 나갔을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다른 볼일을 보고 저녁에 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채권자로 오해한 사실을 풀고 우리가 온 이유를 이해가 간다는 듯이 말을 많이 해주었다.

그는 몇 해 전까지 김숙자 할머니에게 토종을 배웠다고 한다. 할머니가 토종 교육도 했는지 묻자 그것은 아니고 할머니는 종자를 많이 받아 토종을 심겠다는 사람들에게 씨를 나눠주고 재배 방법까지 다 알려 주었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자신이 씨를 찾을 때는 언제든지 돌려주는 조건이 그녀의 교육 조건이었다. 많을 때는 30여 분이 그에게 씨앗을 얻어가고 토종을 심었다고 한다. 아마 서울에서 멀지 않아 귀농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사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갔다. 그런데 차츰차츰 사람들이 토종을 찾지 않고, 자기도 이제는 토종을 심지 않으니 지금은 할머니 혼자 심고 있다고 한다.

- 할머니 치매 초기예요.

뜻밖의 말을 했다. 그가 발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웃집 할머니도 혀를 차며 곁으로 다가왔다.

- 가끔 오락가락해요. 발을 한번 보세요. 제정신은 아니죠. 우리한테 절대 이렇게 심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와 한마디도 다를 것이 없었다.

친구의 중매로 스물한 살에 시집와서 농사짓는 집이지만 부족함 없이 살다가 남편 사별하고도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런데 대처에 나간 자식들이 땅을 팔아가고 점점 농사 채는 줄어들더니 이제는 집마저 팔아버려 언제 이사 가야 할지 모를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품팔이하면서 근근이 먹고 살지만, 아들자식은 사업하여 바쁘니 모시기 어렵고, 시집간 딸은 멀어서 못 모시는데 집이 팔렸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비가 쏟아지고 일곱 시가 넘고 주변이 어두워져서야 지친 허리가 곱은 채로 돌아왔다. 험령한 몸뚱이 바지가 거의 엉덩이까지 흘러 내려와 있었다. 무거운 호미가 힘없이 잡혀 어쩔 줄 몰라 나폴대는 바지만 김매고 있었다. 주인이 저녁은 그만두고 해넘이 시간을 맞춰 일이 끝내 준 모양이었다.

사정을 미리 안 우리는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내색하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주변의 곰탕집으로 갔다. 곰탕을 드시겠다는 것을 우겨서 도가니탕을 사드렸다. 남은 것은 싸 가신다고 그릇을 달라기에 곱빼기로 시켜드렸다.

누군지 묻지도 캐묻지도 않았다. 고단한 삶 속에 낯선 이가 이끈 곰탕집으로 투덕투덕 따라와 자리에 앉을 정도로 정이 고파 보였다. 영문도 모르고 얻어먹은 도가니탕. 드시는 내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가 눈시울에 눈이 별졌다. 식당의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훔쳐냈다. 얼굴에서 흙 눈물이 묻어났다. 물수건을 다시 한 개를 더 시켜 닦게 해드렸다. 곰탕 한 그릇에 울컥하는 할머니, 그까짓 것에 평생 참아온 눈물하고 바꿀 수 있다니!

- 왜 왔어? 근데 누구여?

그제야 누군지, 그리고 용건을 묻는 그녀. 그 물음에 삶이 묻어났다.

- 토종 씨앗 때문예요.

- 나 무식혀! 여순 반란 때문에 3일 학교 간 것이 전부여.

아니 뭣이 중한 디? 대뜸 뜬금없는 말을 디밀고 있는 게 그걸 전제로 해서 마주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순천 별량 출신이었다. 장모님 고향과 같다니 아내도 울컥한다.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나는 모양이다. 순천 별량에서 친구 소개로 포천까지 시집을 와 시아버지한테 받은 씨앗이 바로 선비잡이 콩이다. 당시 마을에서는 장단콩이 주를 이뤘으나, 집집마다 선비잡이 콩을 심어 메주를 빼고는 다 했다는 것이다. 밥밑콩에서 콩가루까지 다 냈으니 만능으로 쓰였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다 팔 것은 장단콩으로, 내가 먹을 것은 선비잡이콩으로 이렇게 나눠 심었다 한다. 시집오니 시아버지가 따로 선비잡이 콩을 간수하게 했다.

거기에 종자 욕심으로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토종까지 아마 포천에서 파주에 이르는 토종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 아니, 왜 그렇게 토종을 찾아 심었대요?

- 말 안하등가? 나 무식하다고. 똑똑지 못하니 새로 나온 품종이 뭘지, 뭘 종자가 돈이 되는지를 몰랐제. 사람들이 수군대며 욕하던 시절이 얼마지... 근데 기가 막히지. 어느 날부터 토종을 찾기 시작하는 거 아니 가베? 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 알고 보니 여그가 서울하고 가까웁게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토종을 찾기 시작했지. 너두 나두 찾았어. 내 별명이 토종 할머니랑께. 호시절이 찾아왔지.

사실은 할머니는 우리가 온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둘밖에 없다고 했다. 씨앗을 얻던지 - 그래서 당연한 듯 식사를 들었는지 모른다 - 집을 보러 오던지, 그 외는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밥을 얻어먹은 게 미안한지 고마운지 술술 말씀을 털어냈다. 그러더니 불현듯

- 심고 다 버렸는데 워짜면 좋지?

사정을 들어보니 이랬다. 오래잖아 이사 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밭이 없었다.

할머니는 앞으로 없어질, 이제는 마지막이 될 텃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자를 심었다. 고랑에 심고, 틈만 나면 심고, 짝이 트지 않은 곳에 또 심고, 그래서 생긴 것이 그 어지러운 텃밭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제정신이 아니게 보이도록 심은 이유였다.

그런데 자식이 뭘지,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땅이 줄고, 근심만 늘더니 그렇게 할머니의 호시절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텃밭을 보면 그러니까 삶의 무게에서 오는 오기와 씨앗이 없어진다는 허전함 그리고 삶의 회한에서 오는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 심어 놓은 온갖 토종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치매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눈에는 어찌면 농사꾼들은 모두 치매인지 모른다. 돈도 안 되는 농사, 뻔히 손해 볼 줄 알면서도 봄이 되면 또 씨를 뿌리며 굳이 굳이 농사를 지으니 분명 치매 아니고는 설명하지 못하리라.

- 괜찮아요. 할머니만 만나봤으면 됐죠. 뭐.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텃밭 농사에 심다 심다 남으면 싫다는 이웃에도 나눠 주고 나머지는 버렸다. 버리다 버리다가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아까워 조금씩 남겨 뒀다며 우릴 냉장고 창고로 데려갔다.

- 에휴! 더 남길걸. 씨는 임자가 있는 법인다.

- 왜 선비잡이 콩은 안 남겼어요?

- 두 줄 남겼잖아.”

- 앵!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선비잡이 콩은 그녀의 텃밭에서 두 줄 만큼의 가치라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은 모른다는 할머니의 희망이 빠져나온 기대의 크기였다. 혹시 심을 땅이라고 생기면 심을 필요한 종자의 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할머니의 텃밭에 있는 작물들은 안타까워서 아무렇게나 심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희망의 두량이 아니었을까.

- 나머지는요?

- 밥맛이 조니께 다들 가져갔지.

그러더니 냉장고 끄트머리에서 따로 싸둔 비닐봉지를 꺼냈다. 선비잡이 콩이었다.

- 다 가져가 버려 잉. 내가 이것만은 냉겨둘려고 했는데, 난 이제 필요 읍썩께. 다 가져가 !!!!”

한참이 흘렀다.

- 이젠 이사가. 아들이 집 지어준다네.

비명에 가까웠다. 우리는 이 말에 제주도 메밀을 지켜 온 이만희 할머니가 생각났다. 그녀는 죽으면서까지 씨를 지키려던 할머니였다.

사실은 선비잡이 콩은 스물한 살에 시집와서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넘겨준 종자여서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다. 부족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씨종자는 유난히 아끼시던 시아버지였다. 그 씨종자 사랑이 일찍 사별한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에게 내려왔다면 그것도 팔자라 했다.

그런 선비잡이 콩까지 내놓으면서 그녀는 모든 씨앗을 내놨다.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냉장고 씨앗 통에 남은 씨를 몽땅 텃 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털어온 듯이 씩씩하고 속이 아팠다.

그제야 할머니 텃밭이 이해가 갔다. 그러고 보면 그녀의 텃밭에는 회한과 미련이 함께 공존하는 묘한 감상이 이는 곳이다.

한참 동안 작별 인사말을 잊지 못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몽그적거리다가 밤이 늦어 일어났다. 우리는 한사코 싫다던 할머니에게 다시 선비잡이 콩 봉지를 슬그머니 쥐여 드렸다. 뭐 어찌하라고 드린 것은 아니었다.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밀던 힘을 풀고 할머니는 다시 냉장고 깊은 곳에 봉지를 감추듯이 집어넣었다. 할머니도 뭐 어찌하려고 되돌려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는 그때 할머니의 타는 목마름의 눈을 봐버렸으나 끝내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50여 평의 텃밭이 괴여 있었다.